경북 영해(寧海) 옥천재사(玉川齋舍)의 건축 특성 및 영향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its Influences of Okcheon Jaesa in Yeonghae, Kyungbuk Province

유 기 원*

Ryu, Kee-Weo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ansitional process and its effect of Okcheon Jaesa in Yeonghae, Kyungbuk province. Through various bibliographies and Jaesil building in Yeonghae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Okcheon Jaesa was established in early 17th century at latest, since then it had been relocated several times. And it was estimated that it was relocated finally to its current location in 1725. 2) Hwasooroo was constructed in 1753, but it was destroyed by a fire in 1811. It is estimated that it was restored next year and remained so far. 3) The closed feeling of space of courtyard in Okcheon Jaesa is estimated as a result of replacing existing lecture hall into the lecture hall with elevated pavilion. 4) Andong-Kweon family affected on building of jaesil each other among their families through mutual exchange and competition. It is estimated to be the influence of Jipheeam of Mooan-Park family that Okcheon Jaesa was changed to Jaesil with elevated pavilion. Since then, Jaesil with elevated pavilion is estimated to have had effect on building Jaesil with low-columned elevated pavilion in Yeonghae area.

Keywords : Okcheon Jaesa, Hwasooroo, Jaesil Architecture with Elevated Pavilion, Family

주 요 어 : 옥천재사(玉川齋舍), 화수루(花樹樓), 누재실(樓齋室), 문중(門中)

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경북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6-1번지에 위치한 옥천재사(玉川齋舍)는 권희언(權希彦, 1500-1549)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한 재실(齋室)이다. ‘중요민속문화재 제260호 영덕 화수루(花樹樓) 일괄’¹⁾이라는 명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옥천재사’ 보다는 ‘화수루’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화수루는 재실 중 전면에 위치한 누각의 명칭이고 원래 재실의 명칭은 옥천재사이다.²⁾

옥천재사는 경북지역에 분포한 27개의 누(樓)재실 중 하나로 경북에 현존하는 많은 재실 숫자를 감안하면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 게다가 옥천재사 외에도 정자와 주거가 함께 건립되어 재실 기능을 보조하는 독특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조선시대 재실건축을 이해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옥천재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³⁾ 정확한 연혁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해 옥천재사의 변천과정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건축 특성을 밝히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한편 옥천재사가 위치한 곳은 영덕군에 통합되기 이전 영해도호부가 관할하던 지역으로 과거 안동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던 곳이다. 1813년에 간행된 『丹陽府誌』 「姓氏條」에는 25개의 성씨(姓氏)가 영해에 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옥천재사를 건립한 안동권씨를

1) 경북유형문화재 제82호인 화수루, 경북민속자료 제2호인 갈천동초가 까치구멍집 및 비지정 문화재인 청간정을 2009년 4월28일 중요민속문화재 제260호로 일괄하여 지정하였다.

2) 1813년에 간행된 『丹陽府誌』 「墓齋條」에는 ‘옥천재사’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1936년에 간행된 『寧盈勝覽』 「亭樓條」에는 ‘화수루’로 기록되어 있는데, 재실과 누각 중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옥천재사’ 또는 ‘화수루’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玉川’은 재실 주변을 흐르는 하천에서 따온 명칭이고, ‘花樹’는 중국 당나라의 위씨(韋氏)들이 섬서성 장안현 위곡(韋曲)에서 화수회를 결성하여 대대로 화목하게 살았다는 화수고사(花樹故事)에서 따온 명칭이다.(『景慕錄』 「花樹樓落成宴序」 및 『近思錄』 卷9 「治法」 참조) 본 논문에서는 재실 전체를 가리킬 때는 ‘옥천재사’로, 누각을 가리킬 때는 ‘화수루’로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옥천재사를 다루고 있는 연구논문으로는 ‘유기원·김성우 (2005. 11). 경북 영해지역의 5대 문중을 중심으로 본 재실건축의 특성. 2005년도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8-21)’과 ‘Ryu, K., & Kim, S. (2007). Characteristics of Jaesil architecture with elevated pavilion in Andong area, Kyungbuk provinc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16(4)’가 있고, 보고서로는 ‘영덕군 (2008). 영덕군 중요민속자료 지정신청 조사보고서. 영덕: 영덕군’이 있다.

*정희원(주저자,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건축과학기술연구소 객원연구원,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Kee-Weon Ryu,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Yonsei Univ.,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Korea, E-mail: keyno1@hanmail.net

본 논문은 ‘중요민속문화재 제260호 영덕 화수루 일괄’에 대한 2010년 한국의 전통가옥 기록화사업의 조사결과를 보완·발전시킨 것이다.

포함하여 대흥백씨, 영양남씨, 재령이씨, 무안박씨의 5개 문중은 영해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자취를 남긴 문중으로 꼽는다. 이 문중들은 14-15세기에 혼인, 유배, 부임 등의 이유로 영해로 이주하였고, 가족제도가 적장자(嫡長子)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계(父系) 중심의 씨족마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동성동본끼리의 관계를 강화하며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되며,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조직 체계가 곧 문중(門中)이다. 이들 문중 간에는 교류 혹은 경쟁을 통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였고, 재실건축 역시 이런 관계 속에서 조영·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옥천재사 역시 이러한 문중 간의 영향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이는 옥천재사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특징 외에도 재실건축에서 누(樓)재실이 갖는 위상과 의미, 그리고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영해지역의 5대 문중을 중심으로 옥천재사와 타 문중 재실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안동권씨 부정공파 영해문중

1. 정착과정

옥천재사는 안동권씨 부정공파⁴⁾ 중 권 책(權 策, 1444-?)을 입향조로 하는 영해문중이 건립하였다. 권 책의 증조부인 권백종(權伯宗)과 그 후손들은 안동에 근거지를 두면서 중앙관직에 오른 재지사족(在地士族)이었다. 그러나 권 책의 종숙(從叔)이자 단종(端宗)의 외숙(外叔)인 권자신(權自愼, ?-1456)이 1456년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에 연루되면서 권자신은 물론 권 책의 집안까지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겪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때 권 책의 형인 권 저(權箸)와 권 서(權署)는 죽임을 당하였고, 권 책은 나이가 어려 영해에 유배된 것이다.⁵⁾

권 책은 13세의 어린 나이로 영해로 내려와 단양신씨(丹陽申氏)와 결혼하면서 인량리(현재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에 거주하였다고 전한다.⁶⁾ 단양신씨는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안동권씨는 대대로 인량리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⁷⁾ 권 책 이후 권인형(權仁衡), 권세평(權世平), 권희언(權希彦, 1500-1549) 3대는 모두 독자로 대를 이었다. 그러나 권희언이 5남2녀를 두면서 자손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문중의 기반이 다져졌다. 문중에서는 권희언의 묘소가 명당이기 때문에 크게 자손이 번창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⁸⁾ 옥천재사는 문중의

세도를 크게 일으킨 권희언의 묘제(墓祭)를 거행하는 곳 이므로 문중 재실 중 가장 중요한 재실로 인식되고 있다.

영해문중은 22세에서 5개파로 나뉘는데, 권희언의 장남 권응당(權應唐) 후손은 종파, 2남 권응우(權應虞)의 후손은 2파, 3남 권응하(權應夏)의 후손은 가산파, 4남 권응상(權應商)의 후손은 어송파, 5남 권응주(權應周)의 후손은 옥금파라 한다. 종파는 주로 창수면 인량리에 대대로 살았고, 2파는 병곡면 송천리와 거무역리, 가산파는 창수면 가산리, 어송파는 영해면 괴시리 어대와 병곡면 송천리, 옥금파는 영해면 원구리 옥금 등으로 분파, 이거(移居)하여 씨족마을을 이루었다.⁹⁾ 『단양부지』 「효자조」에 권응당이 부친 사후에 동생들과 함께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평소 ‘아내도 외인(外人)이다. 형제간의 일을 어찌 외인이 알도록 할 수 있는가?’하였다고 한다.¹⁰⁾ 이는 16세기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희언의 손자대인 23세에는 12명이 파보(波譜)에 기재되어 있어 있는데, 이때에 이르러 무과 급제자가 나오기 시작한다.¹¹⁾ 이후 25세 권상임, 26세 권도홍, 권만두, 권대항, 권대임, 권대규, 28세 권창익, 29세 권홍복, 권 규 등 다수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고,¹²⁾ 24세 권 경, 25세 권상길과 같이 관직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학행과 충절로 이름 높은 선비가 출현하자 영해문중은 명문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2. 재실현황

『단양부지』와 『영영승람』에는 영해문중의 재실이 9개로 확인된다. 대봉재사, 언곡재사, 옥천재사는 문중 전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재실이고, 나머지는 각 지파(支派)에서 운영하는 재실이다. 문중에서 공동 운영하는 3개의 재실은 모두 현존하고 있는 반면, 속곡곡재사 이외의 지파 운영 재실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¹³⁾ 대봉재사는 입향조 권 책, 언곡재사는 그 아들과 손자인 권인형과 권세평, 옥천재사는 증손인 권희언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각각 건립되었다. 옥천재사는 3개의 재실 중 가장 먼저 창건되었고 유일하게 누각을 갖추었으며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그 다음으로 1768년 대봉재사, 1811년 언곡재사 순으로 창건되었다.

옥천재사는 주변 산세가 빼어나고 앞에는 계류가 흘러

4) 안동권씨는 고려 태조의 건국을 도운 공로로 태사(太師)의 직위와 권성(權姓)을 하사받은 태사공 권행(權幸)을 시조(始祖)로 한다. 이후 10세에 이르러 15개 파로 나뉘는데, 부정공파(權正公派)는 권통의(權通義)를 중시조로 하는 분파(分派)이다.

5) 『세조실록』 세조 2년(1456) 6월 8일 기사 참조

6) 『權策...娶丹陽申氏因居于仁良里子孫最盛世有偉人焉...』, 『丹陽府誌』 「寓居條」

7) 「仁良...一邑各姓宗室所居若載寧李氏安東權氏...世居繁昌遂安金氏丹陽申氏移居他面...」, 『丹陽府誌』 「各洞條」

8) 영덕군 (2008). 영덕군 중요민속자료 지정신청 조사보고서. 영덕: 영덕군, p. 71

9) 영덕군 (2002). 盈德郡誌(上). 영덕: 영덕군, pp. 132-135

10) 『權應唐...常曰妻外人兄弟間事豈使外人知之及親沒與應虞應夏應商應周廬墓三年...』, 『丹陽府誌』 「孝子條」

11) 『丹陽府誌』 「人物條」 참조

12) 『丹陽府誌』 「科目文科條」 참조

13) 영해문중 재실 중 대곡재사는 2005년 6월 답사 당시에도 많이 훼손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붕괴되어 사라졌다. 이 재실은 상량목서명(崇禎紀元後五癸丑三月七日立柱同八日乙丑申時上樑癸未生成造)을 통해 1913년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1. The Yeonghae Family (a branch of Andong Kweon Bujeonggong family) Tree and the Jaesil (安東權氏 副正公派 寧海門中 家系及齋室)

Figure 2. The Surroundings of Okcheon Jaesa (玉川齋舍 周邊環境)

재실로서는 보기 드문 경관을 갖추고 있지만 터가 넉넉한 편은 아니다. 권희언의 묘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500 m 떨어진 옥천재사는 좌향을 동에서 북쪽으로 약 15° 틀어

경좌갑향(庚坐甲向)으로 잡았다. 북쪽에는 재사의 관리인이 거처하던 까치구멍집이 있고 남쪽에는 70 m 떨어져 청간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 건물들은 같은 문중에서 관리·운영되며, 과거 묘제 때 옥천재사의 주사와 강당 기능을 보조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¹⁴⁾

III. 옥천재사 변천과정

1. 옥천재사의 창건 및 이건

현재로서는 옥천재사의 창건연대가 확실하지 않다. 문중에서는 오이재(五怡齋)라는 건물을 권희언의 다섯 아들이 건립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¹⁵⁾ 다만 옥천재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록인 대은(臺隱) 권 경(權 璟, 1604-

14) 영덕군 (2008). 영덕군 중요민속자료 지정신청 조사보고서. 영덕: 영덕군, pp. 56-57 및 pp. 70-71

15) 영덕군 (2008). 영덕군 중요민속자료 지정신청 조사보고서. 영덕: 영덕군, p. 9. 그러나 ‘남 혼 (편지) (2004). 寧海遺錄. 향토사연구회, p. 390에는 옥천재사의 다른 명칭이 오이재사(五怡齋舍)임을 밝히고 있다.

Figure 3. View of Okcheon Jaesa (玉川齋舍 全景)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Figure 4. Site of Okcheon Jaesa (玉川齋舍 配置圖)
(문화재청 (2010). 한국의 전통가옥34. 대전: 문화재청, p. 373)

a) Okcheon Jaesa (玉川齋舍)

b) Daebong Jaesa (大峯齋舍)

c) Eongok Jaesa (彦谷齋舍)

d) Sokgogok Jaesa (粟古谷齋舍)

e) Daegok Jaesa (大谷齋舍)

Figure 5. Plan of Jaesil for the Yeonghae Family (寧海門中齋室平面)

1666)의 「寓玉川齋舍漫吟三首」와 「上荷潭金先生時讓」으로 미루어 17세기 전반 또는 그 이전에 옥천재사가 창건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가 스승인 하담(荷潭) 김시양(金時讓, 1581-1643)에게 보낸 편지¹⁶⁾에는, 몇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주사 기능의 건물과 함께 권 경과 재종질 권상실(權尙高, 1619-1662)이 수개월동안 머물 수 있는 강당 기능의 건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둘째, 묘제 이외에도 ‘요사스러운 기운’, 즉 전염병이나 기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피난처로 재

16) ‘장석(丈席)에 나아가 뵈지 못하니 십년이 되었습니다.....경(璟)은 거처하고 있는 곳에 요사한 기운이 바야흐로 성하여 옥천재사에 가서 우거한지 이미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경계가 그윽하고 천석(泉石)이 깨끗하여.....재종질 상실(尙高)은 일가의 문사(文士)인데 집 아이와 함께 이곳에 머물고 있어서 정황(情狀)은 적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써 도와주고 상하의 의론을 도울 수 있는 어진 스승이 없습니다.....수비 별장이 있는 옥천(玉川)은 선대 재사(齋舍)가 있는 골 이름 옥천(玉川)과 우연히 같기 때문에, 아울러 거기에서 우거하며 읊은 시와 함께 기록해서 올립니다. 앞드려 생각하건대, 이 시를 보시고 교정하여 주시면...’, 권璟 (2006). 臺隱先生文集 (권호기 역주). 영덕: 대은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pp. 124-125

실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 셋째, 장기간 머물면서 정자나 정사와 같이 장수(藏修)의 장(場)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이다.

한편 권 경이 머물며 시를 짓던 17세기 전반기의 옥천재사 위치는 현재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권만두(權萬斗, 1674-1753)의 「玉川追遠齋移建上樑文」¹⁷⁾과 권희언의 7대손(28세)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玉川齋舍前後記實」¹⁸⁾에 따르면 수해로 인해 여러 번 이건하였고, 또 현재의 위치로 이 건한 것이 을사(乙巳)년이라고 하였다. 을사년은 「玉川追遠齋移建上樑文」을 지은 권만두(權萬斗, 1674-1753)의 생몰년으로 미루어 1725년으로 추정된다.¹⁹⁾ 이때는 화수루가 건립되기 이전으로 추원재(追遠齋)라는 방과 마루로 구성된 강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²⁰⁾

2. 화수루와 청간정의 창건

1725년 이 건된 옥천 추원재는 이후 화수루가 새롭게 건립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玉川齋舍前後記實」에는 간송당(澗松堂) 전광옥(田光玉, 1694-1761)이 화수루 낙성식에 참석하여 서문을 지은 지 60여년 뒤에 화재로 전소되었다고 한다.²¹⁾ 「彦谷齋舍 冊建記事」에 따르면 화재가 난 해는 1811년이고,²²⁾ 화수루 창건 후 60여년 뒤 화재가 났다고 했으므로 화수루의 창건시기는 1750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당시 「花樹樓落成宴序」를 작성한 전광옥의 생몰년과도 부합된다. 또 「花樹樓落成宴序」에는 연도는 밝히지 않고 4월8일 계사일에 낙성 연회가 베풀어졌다고 하는데,²³⁾ 1750년대 중 4월8일이 계사일인 해는 1753년이므로 화수루는 1753년에 창건된 셈이다.

한편 청간정의 ‘청간(聽澗)’이란 계곡을 듣는다는 뜻인

데, 정자에서 아래의 계곡을 볼 수는 없지만 물이 떨어지는 소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²⁴⁾ 청간정은 1808년에 망와(忘窩) 권창유(權昌愈, 1737-1780)가 권희언을 추모하기 위하여 무진년에 건립했다고 한다.²⁵⁾ 「聽澗亭記」를 지은 권용석(權龍演, 1762-?)과 「聽澗亭上樑文」을 지은 권도정(權度精, 1769-1826)의 생몰년으로 미루어 무진년은 1808년이며, 이때 청간정이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808년은 권창유가 이미 사망한 이후이므로 권창유가 청간정 건립을 제안하고 그의 유지를 받들어 문중에서 건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²⁶⁾

한편 1808년은 화수루가 소실되기 3년 전으로 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간정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청간정은 문중의 장수(藏修), 강학(講學), 경로(敬老) 등의 목적으로 건립되었는데,²⁷⁾ 화수루가 이런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청간정을 건립한 것이다. 이것은 옥천재사의 주변 산수가 매우 수려하기 때문이며, 다른 재실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다.

창건시 청간정은 현재와 달리 가운데 1칸만 방을 두고 전면과 좌우에 마루를 설치한 평면이었는데,²⁸⁾ 현재의 유구로도 이런 사실이 유추된다.²⁹⁾ 다만 언제 지금과 같이 마루 1칸이 방으로 확장, 변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3. 화수루의 재건과 청간정의 중수

1811년에 일어난 화재로 화수루를 포함한 재실 전체와 주변의 가옥들이 모두 소실되었고, 이 시기에 건립 중이던 연곡재사의 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재건을 서둘렀다.

‘...뜻밖에도 지난해 5월 3일에 우연히 불이 나서 수십 칸의 집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으니 전해 내려온 고적(古蹟)이 온통 불타버린 폐허가 되었다. 그밤에 곁에 있던 집[夾戶] 7~8채도 모두 삼전벽해의 변화를 겪었다... 여러 의견들 모두 주사(廚舍)는 가을이 오기 전에 세우고 재실과 누대는 차례로 내년 봄에 짓자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 우선 보리를 각 집에서 수합하기로 했는데, 1가마[石]를 낸 사람은 세 집(玉琴, 魚臺, 松川)이고 그 다음은 7~8말[斗] 혹은 4~5말에서 1말까지 합하니 20여 회[斛]가 되었다. 각 마을마다 쌀로 바꾸어 운반하도록 하고, 도감(燾)과 본소유사(貳, 貳)를 추천으로 뽑아 일을 주관토록 하였

17) ‘...自我高曾有聞基址之累遷非止一再倚麓立謝只快前欄之高臨築石堅檻其奈後沙之侵剝...’, 『景慕錄』 「玉川追遠齋移建上樑文」

18) ‘삼가 살펴보니, 우리 7대조 충순공(忠順公)의 묘소는 옥천(玉川)가의 곤좌(坤坐) 언덕에 있다. 분암(墳庵)의 터를 옮기고 집(屋宇)을 고쳐 세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며 오래되었다. 을사(乙巳)년에 처음 옥류(玉流) 위와 갈류(葛流) 아래의 곤좌 땅을 선정하였는데... (恭惟我七代祖忠順公冠履之藏在於玉川上坤坐原墳庵基址之移遷屋宇之改建非止一再而舊矣歲乙巳始占定于玉流上葛流下坤坐之地...), 『景慕錄』 「玉川齋舍前後記實」

19) ‘영덕군 (2008). 영덕군 중요민속자료 지정신청 조사보고서. 영덕: 영덕군, pp. 9-10’에서 을사년을 1785년으로 본 것은 옥천재사의 전체 연혁을 파악하지 못하여 비롯된 오류이다.

20) ‘...廉檻砌庭之規模整飭輪奐其美房堂戶隔之制度分明...’, 『景慕錄』 「玉川追遠齋移建上樑文」

21) ‘...而澗松堂田公光玉作序燕落之...而中間不無動搖壞缺之處而即其時有司或改瓦或改楹隨毀隨葺而至于今奠守者六十有餘年矣不意前年夏五月初三日偶然失火數十間屋宇一朝爲瓦礫之場...’, 『景慕錄』 「玉川齋舍前後記實」

22) ‘彦谷西來龍良坐原 酒我九代祖承議公八代祖別侍公兩代冠履之藏也...齋屋營置在所不已而每當瞻掃之時未嘗不怵惕彷徨慨然有志者久矣歲庚午十一月日門老與有司某某約日相會于大峯永報堂...吾意則斷當以明春爲始限秋前必成計未知門議果何如也...望出都監二員德運天管貨一員煥與本所有司默恒及別有司忒相議幹事之地...開春後...以某月某日立柱上樑...而不佳玉川火變出於意外重建之舉不可少緩故中間停役者累月矣...’, 『景慕錄』 「彦谷齋舍 冊建記事」

23) ‘...是歲夏四月八日癸巳設宴以落之...’, 『景慕錄』 「花樹樓落成宴序」

24) ‘...憑欄而坐不見其流但聞觸石琤琤若憂玉然名以聽澗其以是歟...’, 『景慕錄』 「聽澗亭重修記」

25) ‘...歲戊辰族兄忘窩公慨勝區之虛老追先世之遺意與門族合謀鳩財營立六楹...’, 『景慕錄』 「聽澗亭記」. ‘영덕군 (2008). 영덕군 중요민속자료 지정신청 조사보고서. 영덕: 영덕군, p. 10, p. 43 및 p. 70’에는 위 기록을 근거로 청간정을 1808년에 권창유가 창건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때는 이미 권창유가 사망한 이후이다.

26) ‘...念昔建齋之周甲宜數間大棟榱桷一門同人心適追志於先父兄發鳩屏之議...’, 『景慕錄』 「聽澗亭上樑文」

27) ‘...迺百數宗族之聚於斯冬暖夏涼宜老人頤養之所春誦秋習況後學觀感之方...’, 『景慕錄』 「聽澗亭上樑文」

28) ‘...左右前面則堂焉而寢其中一間遂扁之曰聽澗亭...’, 『景慕錄』 「聽澗亭記」

29) 영덕군 (2008). 영덕군 중요민속자료 지정신청 조사보고서. 영덕: 영덕군, pp. 42-48 참조

다. 전재(錢財)에 있어서는 응당 조치하고 계획할 방도가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주관하는 사람이 택일하여 한쪽은 기와를 굵고 한쪽은 재목을 베고 혹은 각 집마다 부역하거나 이웃 마을의 힘을 빌려 먼저 주사 5칸과 익랑[兩挾] 6칸을 세워서 추수 전에 조성하기를 기약하였고, 고지기를 먼저 집에 들였다...또 앞으로 해야 할 큰일을 생각하니 이층 기둥의 재각(齋閣)을 짓는 일인데, 해는 짧아지고 날씨는 차가워져 겨울 동안에는 집짓기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잠시 날이 풀리기를 기다린 뒤에 지어야 할 것이다. 기둥과 들보 및 각목은 산 아래에서 취하고 서까래[椽]과 판자(板子)는 각처에서 사와서 모월 모일에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리되 터는 옛날 주춧돌(古礎)에 의지하니 공력을 덜기 위해서이다. 안산(案山)과 앞들[前原]의 배치는 옛날 것을 그대로 쓴 것이다. 방을 양쪽에 둔 것은 더울 때나 추울 때 거처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건물형식은 넓고 시원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방과 당이 밝고 기둥들이 제법 완비되어 사람들은 모두 이전 것에 비해 낫다고 하였다....³⁰⁾

재건은 화재로 소실된 직후 1811년 시작하여 추수 전까지 먼저 주사와 익랑을 완성시키고, 추위가 물러가기를 기다려 이듬해인 1812년에 화수루 공사가 완료되었다.³¹⁾ 이때의 규모는 지금과 같이 주사 5칸에 익랑 6칸이며, 이후 큰 변화없이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옥천재사는 1750년대의 배치와 평면, 규모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을 줄이기 위해 예전 초석을 그대로 이용하여 재건했기 때문이다.

한편 1811년 화재시 주변의 가옥이 모두 불탔다는 사실로 미루어 현재의 까치구멍집은 19세기 이후 다시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청간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화재를 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청간정은 20세기 초에 한번 중수되었다. 김세락(金世洛, 1854-1929)의 「聽澗亭重修記」에 망월당(望越堂)을 짓고 나서 중수하였다고 하였는데,³²⁾ 망월당은 대봉재사 좌측의 경모재(景慕齋) 중 대청을 가리키는 당호로 1912년 완공된 건물이다.³³⁾ 그러므로 청간정은 1912

년 이후 중수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중수 내용은 알 수 없다.³⁴⁾

IV. 건축 특성 및 영향 관계

1. 옥천재사의 건축 특성

옥천재사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는다면 전면의 누강당이 후면의 주사보다 높은 전고후저(前高後低)의 단면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영해지역 뿐만 아니라 안동문화권의 누재실 중 이러한 단면을 갖는 예는 옥천재사가 유일하다. 누재실이 아니더라도 한국 전통건축 중에서 옥천재사와 같이 전면의 건물이 후면보다 높은 경우는 찾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전면의 건물이 높을 경우, 대지의 고저차나 기단의 높낮이를 이용하여 전후 건물의 고저를 조절하거나, 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후 건물의 간격, 즉 중정의 크기를 조정하여 후면 건물의 안대를 확보하고 중정의 폐쇄적 공간감을 경감시킨다.

안동문화권의 다른 누재실의 경우에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진다. 옥천재사와 같이 전면에 누각을 갖춘 누재실 중 단한 □자형의 배치이면서 중정의 크기가 비슷한 재사로는 서지재사와 가창재사, 기곡재사 등이 있다. 이 재실들은 대지의 고저차와 기단의 높낮이를 이용하여 전면의 건물이 후면보다 높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중정의 폐쇄감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대지의 고저차가 크지 않거나 기단을 높일 수 없는 경우에는 호암재사(모선루)와 같이 누각의 하층 기둥 높이를 낮춰 반루(半樓)의 형식을 취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이런 방법들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남흥재사와 같이 측면에 누각을 배치시켜 전고후저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방법도 있다.

Figure 6. Section of Okcheon Jaesa (玉川齋舍斷面圖)
(문화재청 (2010). 한국의 전통가옥34. 대전: 문화재청, p. 373)

30) ‘...不意前年夏五月初三日偶然失火數十間屋宇一朝爲瓦礫之場遺來古蹟蕩然爲煨燼之墟其外七八夾戶又沒數爲滄桑之變矣...諸議皆以爲廚舍則不可不秋前成立齋樓則次第以明春營建而爲先麥糧以各戶收合一石出之者三家玉琴漁臺松川其次七八斗或四五斗以至於一斗合之爲二十餘斛各其村使之作米而運又望出都監總與本所有司默斌使之主幹而至於錢財則從當有措畫之道矣自此以後主幹之人卽爲擇日一邊燔瓦一邊伐材或以各家赴役或以隣洞借力先立廚舍五間兩挾六間期於秋收前造成而庫直則先爲入宅...且念前頭巨役惟是二層柱齋閣而日短時寒不可以冬內經姑待解凍後經作而棟樑榜則伐取於山下長椽及板子則買得於各處以某月某日立柱上樑而址依古礎功力之欲其省也案對前原排布之仍舊貫也房置兩頭寒暑居處之從方便也制度間架不甚宏敞而房堂之向明棟樑之苟完人皆謂比前有優云...’, 『景慕錄』 「玉川齋舍前後記實」

31) 현재 화수루 대청 종도리장혀에는 목서명의 앞 부분이 퇴색되어 건립연대를 확인할 수 없다. 목서명 중간에는 ‘...柱同月二十七日□上樑乙酉(?)生...木手金...’라 되어있다.

32) ‘...既作望越堂俾後孫之瞻依有所又重新此亭...’, 『景慕錄』 「聽澗亭重修記」

33) ‘...堂成之五年丙辰(1916)嗣孫相勳甫以門老命北走三百程屬世洛以記事之文...’, 『景慕錄』 「望越堂記」

34) ‘영덕군 (2008). 영덕군 중요민속자료 지정신청 조사보고서. 영덕: 영덕군, p. 10’에는 청간정이 1910년에 중수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Figure 7. Courtyard of Okcheon Jaesa (玉川齋舍 中庭)

이처럼 대부분의 누재실이 전고후저가 되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옥천재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대지의 고저차가 크지 않은데도 후면 건물의 기단을 높이거나 전면 누각의 높이를 낮추지도 않았고, 전후 건물의 거리를 떨어뜨려 배치하거나 측면에 누각을 두지도 않았다. 이런 결과로 인해 옥천재사의 중정은 안동문화권의 어느 ㅁ자 집보다 더욱 폐쇄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안동문화권에서는 보기 힘든 옥천재사의 전고후저 특성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아니면 주변 상황에 의해 뜻하지 않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안동문화권 누재실 중 전고후저의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지금과 같은 옥천재사의 독특한 모습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일 것 같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면 건축을 주도한 영해문중이 타 지역과는 다른 건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같은 안동문화권에 속하는 영해지역에서 그와 대치되는 건축관이 발현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옥천재사가 전고후저의 특성을 갖게 된 것은 1753년 화수루가 창건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⁵⁾ 화수루 창건과 함께 옥천재사 전체를 중건하였다면 당시 보편적인 건축 수법에 따라 마당과 주사가 있는 터를 돈우거나 기단을 높이는 방법 등을 통하여 누재실의 단면이 전저후고가 되도록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렇게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강당을 누각형식으로 대체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면서 전고후저의 이례적인 단면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전면 누각의 위치를 더 앞쪽으로 옮겨 건립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옥천재사의 주변 상황은 이런 방법을 수용하기 힘들었던 것 같다. 1811년 화재시 주변의 7~8채가 함께 불탔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옥천재사 주변에 많은 가옥들이 밀집해 있었을 가능성

Figure 8. Section of Jaesil with Elevated Pavilion (樓齋室 斷面圖) (김봉렬 (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3. 서울: 이상건축, pp. 256-292 및 문화재청 (2006). 한국의 전통가옥11. 대전: 문화재청, p. 98)

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지를 넓히기도 어렵기 때문에 강당이 있던 위치에 누각이 건립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화수루가 강당이 있던 자리에 건립되었다면 1753년 이전 옥천재사는 재실 전면에 강당을 배치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누각을 전면에 배치한 수법은 안동문화권의 누재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그러나 전면에 강당을 배치한 재실 형식은 현재 안동문화권에서 예천의 첨모당과 영덕의 옥산재(청류정)가 남아있을 정도로 많이 보이는 형식은 아니다.³⁶⁾ 강당과 주사가 각각의 건물로 나뉘어져 있는 재실의 경우, 강당을 후면에 배치시키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1753년 이전의 옥천재사는 이례적으로 전면에 강당을 배치한 것이다.

전면에 강당을 배치한 이유는 재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영해지역의 진성이씨 재실인 옥산재(청류정)에서는 그 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계류에 가깝게 一자형의 강당을 전면에 배치시키고 ㄷ자형의 주사는 그 뒤에 배치하였다. 강당에서 계류를 감상할 목적에서 전면에 강당을 배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강당을 청류정(淸流亭)이라 명명한 것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a) Plan (平面)

b) View (全景)

Figure 9. Oksanjae (Cheongryoojeong) (玉山齋(淸流亭))

35) 1812년 옥천재사를 재건할 때에는 소실 전의 배치와 규모를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보인다. 각주 30) 참조

36) 옥천재사와 건립 배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IV-2.장에서 다룬 집희암(덕후루)도 17세기 창건시 전면에 강당[堂室]을, 후면에 주사[廚庫]를 배치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維我高王考判書府君衣冠之藏于此百有餘年矣 襄樹未幾即創立齋舍其制前爲堂室後爲廚庫使僧徒守之...’, 『崎軒先生文集』 「德厚樓記」 (朴龍相, 1680-1738)

옥천재사 앞의 계류는 옥산재의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치가 뛰어나다. 옥천재사 역시 옥산재와 같이 계류의 경치를 감상하기 위한 의도로 강당을 전면에 배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재실이 묘제와 묘소 수호를 위한 기본적인 목적 외에 장수(藏壽)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³⁷⁾ 강당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강당을 누각으로 대체한 것은 계류를 감상하기 위한 목적이 강화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실의 누각은 강당 기능을 보완 또는 분담하려는 목적에서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동의 능동재사는 1684년 강당 전면의 부속채가 있던 위치에 누각 7칸을 건립하여 기존 강당의 마루 기능을 강화시켰다.³⁸⁾ 그러나 옥천재사는 누각 건립 전후를 비교해볼 때 누각을 건립하여 얻을 수 있는 기능상의 효과는 크지 않다. 강당에 더하여 누각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강당을 누강당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강당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할 목적이라면 구지 전례가 없는 전고후저의 단면형식을 감수하면서까지 2층의 누각을 지을 이유가 없다. 재실을 이전한지 30년도 안되어 강당 대신 누각을 지은 이유가 단지 강당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영해지역에 건립된 다른 문중의 재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영해지역 재실과의 영향관계

안동문화권에서는 재실에 누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17세기 후반이고,³⁹⁾ 영해지역에서는 집회암에 덕후루를 건립한 18세기 전반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출현시기로만 비교해 본다면 영해지역의 누재실은 안동문화권의 건축문화가 전파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영해문중의 시조인 권 행(權 幸)의 묘소를 수호하는 안동의 능동재사가 1684년에 누각을 건립한 사건은 옥천재사의 화수루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옥천재사의 경우에는 안동문화권의 누재실보다 영해지역에 먼저 건립된 집회암과의 공통점이 더 많이 발견된다.

영해지역 읍지에는 18개 문중의 약 70개 재실이 기록되어 있지만⁴⁰⁾ 일제강점기 이전에 건립된 현존 재실은 30여개에 불과하다. 이 재실 중에서 옥천재사 외에 무안박

a) Jipheeam (Deokhooroo)
(集喜庵(德後樓))

b) Saamjae
(思庵齋)

Figure 10. Jaesil with Elevated Pavilion in Yeonghae Area
(寧海地域 樓齋室)

(Left Drawing: 경상북도 (2005).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회의서류·보고서 및 회의록-(1985-1987). 대구: 경상북도, p. 820)

씨의 집회암과 재령이씨의 사암재⁴¹⁾만이 누각을 갖추고 있다.⁴²⁾ 이 재실들은 주사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의 형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배치평면을 갖고 있지만⁴³⁾ 누각이 강당의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⁴⁾

집회암은 무안박씨 박의장(朴毅長, 1555-1615)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한 재실로 17세기에 창건되어 1720년을 전후한 시기, 즉 화수루보다 약 30년 먼저 덕후루를 증건(增建)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⁵⁾ 처음 창건할 때 모습은 지금과는 달리 전면에 강당[堂室], 후면에 주사[廚庫]가 있었으며, 재실의 관리는 승도(僧徒)에게 맡겼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재실이 퇴락하자 집회암을 증건하면서 덕후루를 건립하였는데, 이때 전보다 규모를 더 넓히고 좌우에 행랑

41) 사암재는 1565년에 창건되어 1659년과 1702년에 중수하였다고 한다.(경상북도 (2003). 문화재대관 V. 대구: 경상북도, p. 376 참조) 재령이씨 임향조인 이 애(李 璣, 1480-1561)의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옥천재사나 집회암과는 달리 후면에 누강당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사암재는 건축 연혁에 대한 문헌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옥천재사와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었다.

42) 누재실은 극소수의 문중이 문중 내 재실 중 중요한 1개소 정도에 건립할 수 있는 재실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3) 주사 기능을 담당하는 건물의 형식은 재실마다 차이가 있는데, 옥천재사는 주거, 집회암은 사찰(암자), 사암재는 부속건물(대문채)의 건물 형식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44) 안동문화권의 27개 누재실 중 옥천재사와 같이 양쪽에 방을 둔 누강당 형식의 누재실은 예천 감로루를 제외한 3개 재실 모두 영해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누강당 형식이 지역적 특성일 가능성이 높다.

45) 박용상(朴龍相, 1680-1738)이 쓴 「德厚樓記」에 보면, 박의장이 죽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재사를 창건하였다(...襄樹未幾即創立齋舍...)고 하였으므로 집회암은 17세기 전반기에 창건된 것으로 보이며, 덕후루는 기문이 작성된 1720년 전후(...維我高王考判書府君衣冠之藏于此百有餘年矣...)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37) 권 경(權 璟, 1604-1666)은 전염병을 피해 재실로 와서 오랜 기간 머물며 시를 짓는 등 재실을 정자와 같은 용도로 활용한 사실이 17세기에도 확인된다. 각주 16) 참조

38) 「天燈山齋舍記」(權斗寅, 1643-1719). 안동민속박물관 (2004). 안동의 현관(下). 안동: 안동민속박물관, pp. 295-297 참조

39) Ryu, K., & Kim, S. (2007). Characteristics of Jaesil architecture with elevated pavilion in Andong area, Kyungbook provinc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16(4), p. 112

40) 유기원 · 김성우 (2005. 11). 경북 영해지역의 5대 문중을 중심으로 본 재실건축의 특성. 2005년도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 10

[曲廊] 등 부속건물을 늘려 지금과 같은 口자형 배치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⁶⁾

집회암은 주사로 사용되는 건물이 암자로 추정되는 만큼 규모도 크고 기단도 높기 때문에 전면에 누각을 건립 하여도 전고후저의 특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옥천재사와 집회암은 모두 전면에 강당을 배치하고 후에 누각 형식의 강당으로 대체하고 있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때는 강당을 보완하는 기능적 측면보다 문중의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강당에 더하여 누각이 설치되지 않고 강당을 대체하는 수준에서 누각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강당 기능이 추가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크게 강당의 기능이 확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옥천재사가 불과 30년의 시차를 두고 추원재라는 강당을 누각 형식의 화수루로 대체한 것은 실제적인 기능상의 목적보다 다른 문중과의 경쟁의식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였을 것이다. 안동문화권의 누재실 중 강당을 누강당으로 대체한 사례가 두 재실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약 30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영해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건립된 화수루와 덕후루는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누재실이 흔하지 않은 재실 형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에도 많은 수의 누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옥천재사가 먼저 누각을 갖춘 소수의 재실 중 가까이 위치한 집회암의 건축 형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참고했을 가능성은 높다. 이를 뒷받침하듯 집회암과 옥천재사는 모두 전면에 방과 마루로 구성된 누강당의 형식이고, 동선이 연결되지는 않지만 모두 부속건물을 연결하여 닫힌 口자형의 배치형식을 취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다만 화수루의 가구 형식을 5랑가로 늘려 덕후루보다 정면 칸수가 작은 것을 보완하고자 한 점은 차이가 있다.

a) 3-Girder System (Deokhooroo) b) 5-Girder System (Hwasooroo)
三樑架 構造(德厚樓) 五樑架 構造(花樹樓)

Figure 11. Comparison of Structure System (梁構造比較)

46) ‘..維我高王考判書府君衣冠之藏于此百有餘年矣 襄樹未幾即創立齋舍其制前爲堂室後爲廚庫使僧徒守之 歷歲既久不免礎圯棟撓之患矣 其後七十餘年上舍族兄履相氏爲掌管 鑰於斯 遂置曲廊於前以墮之 凡門堂齋宿眠濯帑藏之所 無不備也 而只緣工未得良未幾又支拄矣謀所以改爲而難 其人上舍兄之弟 鄰相請于衆曰 吾請懲前改圖成家兄追孝之志於是父兄宗族喜而委其任焉 不數月而功告訖其幹敏亦可尙也 蓋其制拓舊址而間架結構略仍舊貫就其前 又加爲三架將以爲 煥室涼軒以待子弟之讀書肄業者 樓既成揭號曰德厚 蓋取曾子所謂 慎終追遠民德歸厚之意也 嗚呼是樓也...’, 『崎軒先生文集』 「德厚樓記」 (朴龍相, 1680-1738)

a) Soodong Jaesa (水洞齋舍)

b) Yijeon Jaesa (泥田齋舍)

c) Hwajeon Jaesa Yukyeongroo (花田齋舍 毓英樓)

d) Daebong Jaesa Chugamroo (大峯齋舍 追感樓)

Figure 12. Jaesil in Yeonghae Area effected in Jaesil with Elevated Pavilion (樓齋室 影響 寧海地域 齋室)

집회암 단 1개 재실과의 비교를 통한 결과이어서 재론의 여지는 있겠지만 동일 지역이면서 건립한 시기와 방법이 유사하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영해지역 재실 중에는 누재실의 영향력을 가늠해 볼 만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영해의 5대 문중 중에서 누재실을 갖지 못한 문중은 대흥백씨와 영양남씨 문중이다. 두 문중의 재실 중 대흥백씨의 수동재사(귀후루)와 영양남씨의 이전재사는 일반적인 재실에서 보기 어려운 강당이 있다.⁴⁷⁾ 일반적인 강당이란 중당형실형의 대칭적 평면에 난간을 두르지 않은 단층 형식이라 알려져 있다. 그러나 두 재실의 강당은 누각의 구조를 갖추고는 있지만 누하주의 높이가 낮아 마치 ‘반루(半樓)’와 같은 모습이다. 이와 같은 반루 형식의 강당은 영해지역 외 안동문화권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영해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⁴⁸⁾ 그러나 5대 문중 중에서 누재실이

47) 수동재사는 1836년, 이전재사는 1886년에 각각 건립되었음이 다음의 상량목서명을 통해 확인된다.

水洞齋舍(歸厚樓): 道光拾陸年丙申二月二十三日丙子巳時立柱同月二十八日口時上梁子坐午向都木手金庚戌

泥田齋舍: 崇禎紀元後五 上之二十三年丙戌三月初四日申時立柱上樑丙申生成造

48) 안동문화권 수백개의 재실 중 10여개 정도밖에 찾아지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매우 독특한 강당 형식으로 간주된다.

없는 문중의 재실에서 이러한 강당 형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누각 또는 반루 형식이 아닌데도 영양남씨 화전재사의 옥영루와 안동권씨 대봉재사의 추감루와 같이 전면에 난간을 설치하고 건물 명칭을 누(樓)로 한 사례도 있다. 이는 비록 완전한 누각 형식의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누(樓)라는 명칭으로나마 누재실을 소유하고 싶은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이며, 재실건축에 있어서 누재실이 갖는 위상과 선호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영해지역 재실건축의 특징들은 18세기 영해 지역에 누재실이 건립된 후 19세기에 이르러 다른 문중의 재실건축에 영향을 준 결과로 판단된다.

V. 결 론

경북 영해의 옥천재사는 적어도 17세기 초에 건립되어 수차례의 중수와 이건을 하였고, 1725년 비로소 현재의 위치에 이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추원재라는 강당 기능의 건물이 있었지만 1753년 화수루가 건립되면서 누강당으로 대체되었다. 1808년에는 재실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청간정이 건립되면서 장수(藏修)의 기능이 강화되지만, 1811년 화재로 재실과 주변 가옥 7-8채가 소실되고 만다. 그 해 바로 주사와 익랑이 재건되고, 이듬해인 1812년 누각이 건립되면서 완공되었는데, 현재의 옥천재사는 1812년 재건된 것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배치와 평면은 1753년 화수루가 창건될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옥천재사에서 보이는 전고후저의 특징은 다른 재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특성이다. 이러한 단면 특성은 1753년 전면에 있던 강당을 누강당으로 대체하면서 이전의 배치형식과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다소 파격적인 단면계획의 건립배경에는 강당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실제적인 기능상 목적보다 다른 문중과의 경쟁의식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에 건립된 영해지역의 누재실은 이후 영해의 다른 문중이 소유한 재실건축에 영향을 끼쳐 ‘반루(半樓)’와 같은 형식의 강당 건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당시 사대부가의 누재실 건축에 대한 인식과 위상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REFERENCES

1. 권 環 (2006). 臺隱先生文集 (권호기 역주). 영덕: 대은선생문집국역간행위원회.
2. 景慕錄 (1910). 大邱: 峩洋出版社. (권호기 소장,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랑리)
3. 경상북도 (2003). 문화재대관 V. 대구: 경상북도.
4. 경상북도 (2005).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회의록·회의서류·보고서 및 회의록-(1985-1987). 대구: 경상북도.
5. 崎軒先生文集 (18세기). (영덕문화원 제공)
6. 김봉렬 (1999). 한국건축의 재발견3. 서울: 이상건축.
7. 문화재청 (2006). 한국의 전통가옥11. 대전: 문화재청.
8. 문화재청 (2010). 한국의 전통가옥34. 대전: 문화재청.
9. 안동민속박물관 (2004). 안동의 현판. 안동: 안동민속박물관
10. 영덕군 (2002). 盈德郡誌. 영덕: 영덕군
11. 영덕군 (2008). 영덕군 중요민속자료 지정신청 조사보고서. 영덕: 영덕군
12. 유기원 · 김성우 (2005. 11). 경북 영해지역의 5대 문중을 중심으로 본 재실건축의 특성. 2005년도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8-21).
13. 이완섭 (역주) (2003). 丹陽府誌. 영덕사료집. (pp. 17 -566). 영덕: 영덕문화원.
14. 한국인문과학원 편집부 (편) (1991). 盈寧勝覽. 한국근대읍지(제19권).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5. Ryu, K., & Kim, S. (2007). Characteristics of Jaesil architecture with elevated pavilion in Andong area, Kyungbook provinc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16(4), 111-130.

접수일(2011. 11. 12)

수정일(1차: 2012. 3. 28)

게재확정일(2012. 4. 23)